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유효성 검증★

- 근본대책을 중심으로 -

정성숙\*

## 요 약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2012년 2월 국무총리실 주재로 안전행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라는 정책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 이 정책은 2012년 3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을 하게 되었으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각에서는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해 보고자 각 정책항목(근본대책)을 5점 Likert 척도로 설문지를 구성한 후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172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근본대책 가운데,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에 대한 대책안 총 12개(관련없는 1문항 제외) 가운데, '다양한 예술교육 기회 확대 및 독서활동을 지원'이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인성발달 관련 특기사항 결과를 입학사정관전형,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반영'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에 대한 대책안 총 3개 가운데, '법정부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방송, 언론,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연중 캠페인 실시'가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에 관한 대책안 총 7개 가운데,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 요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강화'가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으로 조사되었다.

## Comprehensive Measures the Elimination of Violence in Schools validated

- Centered on the fundamental countermeasures -

Jung sung Sook\*

## ABSTRACT

Recently, school violence has come to the fore as a social phenomenon.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eradication of school violence" as a policy safety are created by Safety Administration bureau and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under the chairmanship of the Office of Prime Minister on Feb,2012. This policy is supposed to be test-operated for a year from March, 2012. but voices of concern about effectiveness have been brought up by some critics greatly. So 172 teachers in high school in Seoul were surveyed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eradication of school violence" with a questionnaire composed of 5 point Likert-type. Among the fundamental measures, there were a total of 12 countermeasures about 'Practices for personality education' (with the exception of unrelated one question). 'Expanding opportunities of various art education and Supporting reading activities' of them ranked highest on average. Then, 'Reflecting results of special feature related to character develops to the Selection of Admission officers and Self-directed learning was the next. And among the three countermeasures about 'Reinforcement of roles of the family and society', 'Pan governmental conducting annual campaign related to broadcast, press, civic group to combat school violence was highest. Finally, among the 7 countermeasures about 'Countermeasure about harmful factors of games and internet addiction', 'Reinforcement of preventive discipline about game and internet addiction' was highest and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various educational contents for preventive discipline about game and internet addiction' was the next.

**Key words** : School violenc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eradication of school violence, Crime, personality education.

접수일(2013년 10월 1일), 수정일(1차: 2013년 10월 16일,  
2차: 2011년 0월 0일), 게재확정일(2011년 0월 0일)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 본 연구는 2012년 용인대학교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 1. 서 론

학교란 학생들의 지적·정서적 성장은 물론, 인성과 사회성 증진을 향상시켜 공동체의 중요성과 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왜곡된 또래집단의 문화형성으로 학교폭력은 매우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의 학교폭력은 주로 동급생간 계급주의, 왕따, 일진에 의한 폭력 및 갈취 등과 같은 행태가 문제시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의 학교폭력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면 교내에서만 아니라 교외로 까지 연계되어가면서 그 폐해는 날로 더해가고 있다.

경찰청에서 밝힌 청소년 범죄(14-18세)는, 절도범죄 비율이 34.8%로 가장 높았고, 강력범죄는 13.5%, 폭력범죄는 8.5%로 조사되었다. 이 중 폭력범죄는 2008(6.6%), 2009(6.7%), 2010(6.2%), 2011(6.1%), 2012(8.2%)로 2012년에 와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폭력범죄 총 발생 건수(2012년)는 37,882건으로 폭력행위 20,473건, 폭행 8,914, 상해 4,884건, 공갈 2,126건, 손괴 1,237건, 협박 196건, 체포·감금 44건, 약취·유인 8건 등으로 조사되었다[1].

이러한 청소년 폭력에 대한 사회적 병리현상은 맞벌이 경제활동으로 인한 자녀에 대한 무관심 및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단지 부모와 교사들은 학생들의 인성교육보다는 성적실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입시 스트레스는 고질적인 병폐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최근 IT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TV, 영화, 게임 등과 같은 자극적인 대중 미디어 매체로 부터의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러한 미디어 매체는 뼈뿔어진 또래집단의 의식 형성과 깊게 관련되어지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최근 7월에 발생한 ‘용인 청소년 살인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 범죄는 잔인한 공포영화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서 자행된 모방범죄라는 점에서 미디어의 폐해의 심각성과 가정에서의 무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나라 사회의 현 주소를 실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 폭력 및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

심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자체 등과 교육 기관에서는 꾸준히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라는 정책적인 안전장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정책내용은 실질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실무자와 수요자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책과제에 대한 유효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은 직접적이면서 현실적인 반영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래서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각 항목마다 그 유효성을 측정해보는 것은 현 시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1년 여간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 대한 유효성을 ‘근본대책’을 중심으로 검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2.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 구성내용

교육부처장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해야 한다[2]는 법률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학부모의 입장에서 기존의 학교폭력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고, 학교폭력의 최근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을 제시하였다[3].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 구성은 총 7가지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5가지의 직접대책과 2가지의 근본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 2.1 직접대책

직접대책은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학교폭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4]하기 위한 세부적 정책이다.

가장 먼저 학교장의 역할 및 책무성에 대한 강화와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와 역량 강화에 대한 여건 조성을 우선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산고 조사체계 개선 및 가해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학교폭력의 은폐 및 방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5]. 또한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를 학교폭력 발생 단계에 이르기 전에 교내 갈등과 문제를 학생들 스스로 해결하는 건전한 또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로 학교폭력 예방 및 자녀교육에 대한 교육을 전 학부모 대상으로 확대하고 연 2회의 학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교사와 학부모간 상담을 확대, 실시하며 직접대책 중 5번째로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으로 누리과정<sup>1)</sup>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천중심의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인성관련 학생부 기재를 내실화하여 입학전형에 반영하여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실천하도록 구성하였다[6].

## 2.2 근본대책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사회가 협력해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으로 구성 되었다.

근본 대책의 첫 번째 분류로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의 정책으로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회복과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하여 가정환경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7].

또한 무분별하게 선정적이고 잔인한 게임과 영상물로 인한 청소년의 사고를 억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으로 게임과 인터넷 중독 예방의 제도와 교육강화 및 치유 활동을 지지하고 예방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촌의 도심 공원에서 늦은 밤도 아닌 시간에 남자 대학생을 잔인하게 찢러 죽인 청소년의 가정 환경을

살펴보면 성장과정에서 당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 경험이 범죄로 이어진 것 같다는 범죄심리분석 전문가 프로파일러들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사건 피의자 3명을 면담한 결과 모두 일상 생활이 on-line 상태의 생활을 즐겼으며 잔혹한 게임과 영상물로 인해 on-line과 off-line 상태의 상황의 판단이 흐려 상당히 잔혹하게 범죄를 일으켰고 가정폭력과 부모의 정서적 방임이라는 공통점을 나타낸 성장기 탓으로 대인 관계가 유독 서툴렀으며 작은 일에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상태가 매우 취약하여 일부러 과장된 행동과 말을 하는 등 공통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하는 공통적 특성을 보였다[8]. 이러한 잔혹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환경과 교육의 무관심적 방임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으로 나타났듯이 근본적이고 기초적으로 가정과 사회가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담고 있다.

## 3. 연구방법

### 3.1 조사절차 및 조사도구

#### 3.1.1 조사절차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를 표집대상으로 선정한 다음 집락무선표지법(cluster random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 관한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작성된 설문지는 2013년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40일간 5개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각 학교마다 50부씩 총 200부를 배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방법은 각 학교마다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교사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무성의한 설문지 28부를 제외하고 총 172부를 추출하여 측정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성이 99명(57.6%), 여성 73명(42.4%)으로 남성이 많았다. 그리고 연령대는 20대 30명(17.4%), 30대 54명(31.4%), 40대 44명(25.6%), 50대 39명(22.7%), 60대 이상 5명(2.9%)로 조사되어 연령대의 비율은 30대, 40대, 50대, 20대, 6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력은 5년 미만 59명(34.3%), 10년

1) 국가가 만 3-5세에 공정한 보육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제도

미만 32명(18.6%), 15년미만 31명(18%), 20년이상 50명(29.1%)로 조사되어 5년미만, 20년이상, 10년미만, 15년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 3.3.2. 조사도구 및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조사도구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가운데 ‘근본대책’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에 관한 12문항,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에 관한 3문항,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에 관한 7문항으로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전혀안되고 있다(1점)’, ‘안되고 있다(2점)’, ‘보통이다(3점)’, ‘잘되고있다(4점)’, ‘매우잘되고있다(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SPSSWIN 18.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을 통하여 빈도조사와 평균값을 조사하도록 하

였다.

## 4. 결 과

### 4.1.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의 내용은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러나 6번째 문항이었던 ‘체육시간 확대’관련 문항은 중학생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여 총 13문항 중에서 12문항을 조사하였다.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근본대책) 현황에 대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본 바와 같이, 인성교육 실천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술교육 기회확대 및 독서활동 지원’에 대한 항목이 평균(3.47)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인성발달 관련 특기사항 결과를 입학사정관전형,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반영’이 두 번째로 평균값(3.46)이 높게 나타났다.

<표 1>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현황에 대한 빈도조사 (n=172), ( )는 %

순번	문항	전혀 안 되고 있다	안되고 있다	보통이다	잘되고 있다	매우 잘되고 있다	평균	유효성 순위
1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실시	7(4.1)	23(13.4)	79(45.9)	45(26.2)	18(10.5)	3.26	10
2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 실시	6(3.5)	2(15.7)	62(36.0)	67(39.0)	10(5.8)	3.28	8
3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학교생활에 실천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운영	2(1.2)	26(15.1)	77(44.8)	42(24.4)	25(14.5)	3.36	4
4	다양한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여 학교배급	2(1.2)	30(17.4)	66(38.4)	59(34.3)	15(8.7)	3.32	5
5	다양한 예술교육 기회 확대 및 독서활동을 지원	2(1.2)	27(15.7)	59(34.3)	56(32.6)	28(16.3)	3.47	1
6	교내·외 스포츠 리그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5(2.9)	25(14.5)	74(43.0)	39(22.7)	29(16.9)	3.36	4
7	스포츠와 인성교육을 접목하여 학생축제로 발전	5(2.9)	26(15.1)	74(43.0)	52(30.2)	15(8.7)	3.27	9
8	규율 준수의 중요성을 체득하는 실천적 인성교육 추진	3(1.7)	30(17.4)	72(41.9)	47(27.3)	20(11.6)	3.30	6
9	인성발달 관련 특기사항 결과를 입학사정관전형,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반영	4(2.3)	24(14.0)	62(36.0)	53(30.8)	29(16.9)	3.46	2
10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사가 각종 연구비 지원, 포상, 학습연구년제 대상 선발에서 우대	8(4.7)	27(15.7)	66(38.4)	49(28.5)	22(12.8)	3.29	7
11	인성교육 역량이 우수한 수석교사를 선발하여 수업 분야 뿐 아니라 인성교육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	8(4.7)	32(18.6)	61(35.5)	48(27.9)	23(13.4)	3.27	9
12	시·도 및 단위학교에서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근절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	5(2.9)	18(10.5)	79(45.9)	45(26.2)	25(14.5)	3.39	3

<표 2>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현황에 대한 빈도조사 (n=172), ( )는 %

순번	문항	전혀 안 되고 있다	안되고 있다	보통이다	잘되고 있다	매우 잘되고 있다	평균	유효성 순위
1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해서 ‘밥상머리교육 캠페인’ 실시	4(2.3)	34(19.8)	64(37.2)	48(27.9)	22(12.8)	3.29	3
2	가족단위 또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6(3.5)	21(12.2)	72(41.9)	56(32.6)	17(9.9)	3.33	2
3	법정부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방송, 언론,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연중 캠페인 실시	3(1.7)	25(14.5)	59(34.3)	63(36.6)	22(12.8)	3.44	1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독서활동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 인성발달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고, 삶의 기준을 확립해 갈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적 과정에 대한 시도에 대해서 교사들이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4.2.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에 대한 근본대책은 총 3

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에 대한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본 바와 같이, 가정과 사회의 역할강화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평균값(3.44)이 가장 높은 항목은 ‘법정부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방송, 언론,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연중 캠페인 실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적으로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방송, 언론,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연중 캠페인을 실시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 현황에 대한 빈도조사 (n=172), ( )는 %

순번	문항	전혀 안 되고 있다	안되고 있다	보통이다	잘되고 있다	매우 잘되고 있다	평균	유효성 순위
1	부모명의 도용방지를 위해 아이핀 사용 확대, 청소년 게임제공 제한 제도 운영을 위한 콜링 오프(Co-ling off) 도입 추진	7(4.1)	26(15.1)	78(45.3)	41(23.8)	20(11.6)	3.24	5
2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 강화를 위해 게임물등급분류제도 보완	1(6)	26(15.1)	67(39.0)	59(34.3)	19(11.0)	3.40	1
3	청소년의 PC방 이용시간에 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고, 경찰청과 합동단속	3(1.7)	23(13.4)	79(45.9)	50(29.1)	17(9.9)	3.32	6
4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 요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강화	6(3.5)	20(11.6)	63(36.6)	65(37.8)	18(10.5)	3.40	1
5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	6(3.5)	22(12.8)	75(43.6)	41(23.8)	28(16.3)	3.37	2
6	게임 과몰입(중독) 예방 정책을 마련을 위한 전국 초중고생(약 10만명) 대상 종합실태조사를 실시	9(5.2)	28(16.3)	76(44.2)	37(21.5)	22(12.8)	3.20	7
7	문화부(게임문화재단), 행안부, 여가부에서는 게임·인터넷 중독 치료센터, 치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4(2.3)	34(19.8)	62(36.0)	54(31.4)	18(10.5)	3.28	3

### 4.3.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에 대한 근본 대책은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한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본 바와 같이,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해서는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 요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강화’와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 강화를 위해 게임물등급분류제도 보완’이 평균값이 3.40으로 공동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이 평균값(3.37)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 폭력과 음란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예방교육이 정책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적극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5. 논 의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의 7대정책을 살펴보면 직접대책과 근본대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안에서도 세분화 대책으로 나뉘어져 7가지 항목으로 정책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7가지 대책 중 연구조사의 결과로 인해 유효성의 빈도수가 높고 가장 기본적이며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3가지를 우선 순위로 선정하여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중 ‘교육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으로 구성 되어 있는 문항에 대한 결과를 살펴 보면 가장 높은 순위가 다양한 예술 교육 기회 확대 및 독서 활동 지원, 다음으로 인성 발달 관련 특기사항 결과를 입학사정관 전형, 자기 주도 학습 전형에 반영과 시·도 및 단위학교에서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근절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구성이 유효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목록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예술 교육 기회 확대 및 독서 활동 지원을 통한 학교폭력 근절 방안은 경쟁화 구도의 강제 주입

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제공하여 스스로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자신감과 분위기를 유도하며 폭력성향과 불안 증세를 최소화 하거나 근절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1990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온 미술 치료 기법[9]과 음악치료기법[10]으로 정서불안이나 폭력 성향을 억제 시키고 평온한 마음을 찾는 방법을 학습하게 하며 공동 생활체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질서를 학습 시킨다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있어 중요한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성 발달 관련 특기사항 결과를 입학사정관 전형, 자기 주도 학습 전형에 반영과 시·도 및 단위 학교에서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근절에 대한 책무성 강화는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에 강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본적인 인성이 결여 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참된 교육도 학습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핵가족화 되어있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주의로 인한 이기주의 성향으로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양식들도 ‘인성’의 문제로 지적 되고 있다. 이에 국무총리실에서는 2012년 02월 06일 학생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 작성시 학생의 인성발달 관련 특기사항을 핵심 인성별로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입학사정관전형,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반영, 입학사정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동양식에 ‘인성’항목을 신설하여 자기평가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학생생활규칙을 준수하는 과정과 규율 준수의 중요성을 체득하는 실천적 인성교육 추진하여 실질적 학습효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의 학생생활규칙에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 하여 교사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권한과 책무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가정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 시키고 교사의 교권 회복으로 교육에 대한 질이 높아지도록 분위기를 전환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인성교육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개인성향을 최소화하고 공동체 사회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 할 수 있다.

둘째,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중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는 문항에 대한 결과를 살펴 보면 가장 높은 순위가 범정부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방송, 언론,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연중 캠페인 실시, 다음으로 가족단위 또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로 나타났으며 세 번째로는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해서 ‘밥상머리교육 캠페인’ 실시를 권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나타났다.

범정부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정과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학생들의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에 가정과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송, 언론, 시민단체와 연계해 연중 캠페인을 실시[11]한다는 내용은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의 정책과는 다르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암묵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장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평가 된다. 이러한 기존 정책들은 대부분 단기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요즘 청소년들은 미디어를 통한 공감대와 자극을 빠르게 받고 전달되는 성향이 있어 정책의 유효성 면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가족단위 또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한다는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인 멜로 드라마나 과도한 액션 위주의 드라마 보다는 청소년기에 그 나이 또래가 겪는 아픔과 고민 등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괴롭힘과 장난의 정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학습 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학습법 중의 하나이다.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현재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청소년 연극치료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연극으로 인해 다른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효과와 학생 만족도가 높다는 여론조사[12]를 토대로 문화체육 관광부에서도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문화 공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렇듯 연극치료로 인한 학교 폭력의 근절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연극치료는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미디어의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이용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문

제점, 피해자의 모습과 가해자의 모습을 한번에 보일 수 있는 시각적 효과와 함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모든 대상이 흥미로워하는 주제와 공감대를 결합시켜 프로그램화 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부분의 세 번째는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해서 ‘밥상머리교육 캠페인’ 실시를 권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가정교육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실 밥상머리 교육의 근본은 예절 습관을 가장 중요시 한다. 이렇듯 가정교육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기본적 예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성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는 가정에서 청소년은 복종적이고 의존적이며 권위주의적이고 반항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반면 부모가 자녀들을 지나치게 방임하면 행동의 통합성과 사회성이 결여되고 책임감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개인의 자율성을 장려하고 협동과 집단의 결속을 강조하는 가정은 대부분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며 자연스러운 분위기와 능동적인 활동과 생활을 습득하게 하는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사회성, 지도성, 책임감이 높고 학업성취가 우수하다고 한 오동준(2005)[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중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으로 구성 되어 있는 문항에 대한 결과를 살펴 보면 가장 높은 순위로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 강화를 위해 게임물등급 분류제도 보완, 그리고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 요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강화 부분에서 동일한 순위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는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을 실시해야 한다는 문항에 유효성이 있다는 의견이 높게 채택 되었다.

사실 청소년들의 게임 문화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은 예고된 것이었다. 음란·폭력·교육 등 게임물 내용심사에 관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하고, 게임물등급위원 구성시 교육·청소년 분야 전문가의 진단

을 받아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 강화를 위해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현실적으로 보완해 가고 있지만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블특정 다수가 제한 없이 손쉽게 접하게 되고 그 유해성의 강도와 정신적으로 자극을 주게 되는지 특별한 제도와 여과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도로 퍼져 나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폭력성과 선정성으로 가상세계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범죄에 눈을 빠져드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이는 가상게임에서의 경험이 현실과 구분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게임에서의 폭력성이 현실에서 혼란스럽게 출현할 수 있는 것이며, 게임 이용자들의 의식작용에도 영향을 주어 폭력적 태도에 대해 도덕적 중요성을 감소시키게 되는, 즉 폭력의 부정성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14]는 주장과 일치한다.

온라인 게임에서의 캐릭터는 잔혹한 폭행과 살생에 대한 제약과 경계가 없고 오히려 더 많은 점수와 온라인상 이익이 생기면서 장기간 몰두할 경우 가상세계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폭력을 일삼고 죄의식 없이 사람들을 해하며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일으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현실에 유해성 등급 심사와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한 예방이 적극적으로 실시 되어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문제 발생이전의 예방이다.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기자제 및 콘텐츠는 현실적으로 전무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자 및 보호자들은 무조건 강압적인 강제에 의한 차단만 내릴 뿐 별다른 대책이 사실상 없다. 따라서 학교 교사들이 인지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지지는 독버섯처럼 퍼져가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을 차단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국 각 초·중·고등학교에 보급 확대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 활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 6. 결론

학교폭력종합대책 7대 실천 정책은 크게 직접대책, 근본대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직접대책과 연관되어

진 문항으로는 34문항, 근본대책은 13문항, 근본대책으로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연구에 사용된 문항은 총 22문항으로 근본대책 중 교육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12문항과 근본

대책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3문항,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 7문항으로, 앞서 언급 했듯이 학교에서 지도하는 교사들이 대책별 세부 내용을 인지하고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내용들의 정책유효성의 빈도순에 따라 근본대책 1개 분야와 근본대책 2개분야, 총 22개 문항을 채택하여 정리하였다.

교사들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인지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유효성이 높다고 판단된 항목을 연구하여 논의 해 본 결과 기존의 연구 또는 TV 보도, 인터넷 보도자료 등과 일치하거나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나고 있어 그 대책에 대한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문제는 정책 내용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유는 연구에서 탈락 되어진 문항이다. 연구에서 탈락 되어진 문항으로는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해학생,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학부모 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등의 대책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머지 45문항이다. 대부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일보(2013.0709) 보도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학교 구성원들이 충분히 인지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정부도 교원들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절대책 첫머리에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를 담았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시작하는데 있어, 특히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다 발각되면 학교장을 성폭력 등 4대 비위 수준에서 징계하도록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한 것인데 그러다보니 학생을 보호하는 정책이 아닌 학교장과 교사들의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학생이 중학교 당시 처음으로 폭행 사실을 교사에게 알렸으나 목살된 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교사의 가벼운 대처로 인해 더욱 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보도 했다. 이러한 사태에 학교폭력 신고와 상담은 교사들 선에서 목살됐고, 보고체계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15]. 이러한 이유는 학생을 보호하고

자 만든 강력한 조치가 교권의 추락과 교실붕괴로 인한 아이들의 성향으로 인해 달라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책임강화 위주의 행정에서 학교장과 교사들이 징계를 받게 되면 개인적인 생활 또는 가정 등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을 자체적으로 마무리하고 해결 하거나 반대로 학교폭력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처벌과 보고는 요즘세대들과 소통하려는 방식과는 거리가 먼 탁생행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문제의 원인은 찾아 근절 시키는 것이 우선이 아닌 책임을 먼저 추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판 할 수 있다. 따라서 근절대책 첫머리에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의 대책에 있어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 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해학생,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대책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부분이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기본적이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학교를 중심으로 멀지 않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해학생,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대책은 피해학생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보호조치가 계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지만 학교마다 분명한 조치 없이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을 전학 시키는 수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각 학교에서는 ‘폭탄돌리기’라는 은어가 생겨날 정도로 현재 학교폭력 발생 직후 강제전학을 시키고 있다.

학교에서 폭탄돌리기란 가해학생을 타학교로 강제 전학 시키면 전학을 간 학교에서도 같은 사고가 발생을 하고 다시 강제전학을 반복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해학생,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대책에서는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단계를 거쳐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전학을 시키는 게 맞지만 가해학생을 받아들이는 학교의 입장이나

학부모들로서는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16].

따라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과 피해자가 제2의, 제3의 연속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규정과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대책에서의 유효성에 대한 인식도는 상당히 낮게 조사 되었다. 문항별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직접 지도하는 담임교사가 관리 교육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 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등의 대책은 학교폭력 근절의 근본대책이 인성교육과 가정 교육이라는 것에 동감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대책에 적극 포함시켰다. 하지만 핵가족화, 맞벌이가정으로 인해 교육이 미비하게 된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가정교육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분명하지만 학부모를 교육하거나 책무를 강화해야 하는 것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생계를 위해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 교육을 받아야 할 강제 법적 근거 없이 자율적으로 참여가 되겠는가 하는 것과 자녀의 가해 사실을 통보하여 책임을 묻게 할 실질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근본적 원인을 덮고 책무를 강조한다면 또다른 폭력을 낳을 수 있다. 현대 사회구조에 맞게 가정 교육과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 가정교육과 인성교육은 학교 폭력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 하는데 상당한 긍정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범죄통계 자료,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3]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자료, 2012. 2.6
- [4]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자료, 2012. 2.6

- [5] 생활법률정보 [http://oneclick.law.go.kr/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http://oneclick.law.go.kr/학교폭력예방을위한노력)
- [6] <http://www.wikitree.co.kr> 위키트리, 학교폭력 모두의 관심과 실천, 2012.2.7.
- [7] 생활법률정보 [http://oneclick.law.go.kr/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http://oneclick.law.go.kr/학교폭력예방을위한노력)
- [8] 한국일보 (2012.5.10)보도
- [9] 경향신문 (1995.10.19) 보도: 그림으로 정서불안 치유
- [10] 동아일보 (1997. 6.27) 보도: 학습부진아 정서불안 음악, 놀이로 치료할 수 있다.
- [11] 국무총리실: 2012.02.06
- [12] [www.etnews.com/](http://www.etnews.com/) 2013.07.09
- [13] 오동준(2005) 중학생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 사회성 발달에 관한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4] 한상암 외1(2006) 온라인 게임중독과 청소년 범죄의 관계, 한국범죄심리학 연구. Vol.2 No.1 2006
- [15] 국민일보 보도(2013.07.09)
- [16] ohmynews(2013.07.08) 학교폭력. 교육이야기

---

[저자소개]

---

**정 성 숙 (Sung-sook Jung)**



1995. 2 체육학사  
2000.2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석사  
2005.8 경호학박사

email : sungsook111@daum.net